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3. 3. 21.(화)
담당 부서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우향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박완섭 (044-200-2212)

한덕수 총리, 부울경 지역 기업의 현장애로 청취

- 충청지역에 이어, 부산 상의 찾아 지역기업 간담회 개최 -

- ▷ 자동차·선박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부울경의 역할 중요
- ▷ 2030 부산엑스포에도 부울경 기업 힘 모아줄 것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1일(화) 오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상의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를 찾아 부울경지역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 * (참석) △(기업 관계자)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김태정 동원BIDC 대표이사, 김동건 동화엔텍 대표이사,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 김재규 엠티에이치콘트롤밸브 대표이사, 박말용 마이텍 대표이사, 박민 옛간 대표이사, 권익환 샤프고트 대표이사, 전인대 은하수산 부회장
 - △(단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권도겸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
 - △(부처·지자체)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 안효대 울산 경제부시장, 김병규 경남 경제부지사
-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 이날 한 총리는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지역 경제 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해외 바이어와 직접 계약 후 해당 고객의 납품처인 국내 기업에 제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수출실적 인정 ▲수출국 현지 인증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B2C 제품 수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선박 등의 선전으로 부울경 지역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울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다음달에 있을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 결과가 BIE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부울경 기업에서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 총리는 지난주 충청지역, 이번주 부울경지역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지역별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관문이자 제조업의 중심지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기업인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신에 강한 기업들과 또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애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기업인, 경제인 단체 합심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울경에서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전선에서 선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력 제조산업에 대한 첨단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수소라든지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노력으로 저희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을 추구하고 있고, 울산은 전기차, 친환경선박 등 주력산업의 미래기술로 선도해나가고 계십니다. 경남은 방산, 원자력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렇게 어려울 때, 기업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활동이나 혁신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부산으로서는 2030 국제박람회 현지 실사가 곧 4월 초에 개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박람회는 꼭 부산의 행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로서 모든 민간과 정부가 힘이 돼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약 150여개국과 접촉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 국제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될때까지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부처의 장관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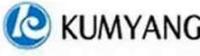
저희가 이 부산엑스포를 2030년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가치 부산의 발전을 전 세계

에 보이고,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또 지속가능성장에 세계와 연계하는 그러한 문제들, 세계에 기여하는 연대정신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만도 약 60조원 정도 이상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약 5천만명 가까운 방문객이 현장에 찾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한국을 2030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과시하고 또 전 세계와 함께 전 세계의 문제를 같이 이행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현장간담회 참석기업 개요

1 금양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설 립 일	1955-11-17
	대 표 자	류광지	분 야	화학공업용 발포제제조

2 동원 BIDD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설 립 일	2006-03-16
	대 표 자	김태정	분 야	화물운송

3 동화엔텍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설 립 일	1980-12-30
	대 표 자	김동건	분 야	조선용열교환기 제조

4 디케이락

	소 재 지	경남 김해 주촌면	설 립 일	1992-01-20
	대 표 자	노은식	분 야	탭, 밸브장치 제조업

5 르노코리아자동차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설 립 일	2000-09-01
	대 표 자	스테판 드블레즈	분 야	완성차 제조

6 엠티에이치콘트롤밸브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설 립 일	1978-04-10
	대 표 자	김재규	분 야	산업용 자동밸브 제조

7 마이텍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설 립 일	2003-08-01
	대 표 자	박말용	분 야	기계 제조

8 옛간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설 립 일	2011-06-14
	대 표 자	박민	분 야	식품 제조

9 샤프고트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설 립 일	2012-05-01
	대 표 자	권익환	분 야	스마트시티·모빌리티

10 은하수산

	소 재 지	부산시 강서구 녹산	설 립 일	2000-09-15
	대 표 자	이현우	분 야	수산식품 제조, 유통